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5면)

채승우 송파구의원 위례~과천선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

지난 10월 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같은 지역구인 박지호 의원(국민의힘,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 참석은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채승우 의원은 지난 9월 8일 제33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데미역과 북위례역 신설안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역 신설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자료 마련 ▲역 신설을 위해 서울시·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 ▲지역 정치권과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8일에는 장지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의견수렴 현장을 찾아 주



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으며 이번 공청회에도 참석해 두데미역을 비롯한 역사 신설과 관련한 지역별 요구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을 살폈다.

박지호 의원은 "위례~과천선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채승우 의원은 "공청회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역할을 만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두데미역 신설 역시 기초의원 한두 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참석이나 5분 자유발언 등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주민 의견이 실제 사업계획에 어떻게 검토·반영되는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